

## 환상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 프로이트와 클라인을 중심으로

### A Psychoanalytic Study on the Phantasy : Freud and Klein

박선영\*†

Seon-Young Park\*†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Dept. of Social Welfare, Chungchong University

**Abstract** · Phantasy is the psychic reality in which drive, sadism and anxiety are represented and constructed. It is one of important metapsychological concepts of the psychoanalysis which explains the formations of symptoms, internal psychic structure, an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subjective world of man and external world.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phantasy we can approach the man's unconsciousness and fathom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itself. Especially S. Freud and M. Klein's psychoanalysis give us the deep insight into the phantasy, on the basis of which we can investigate the cause and structure of the pathological phenomena of the man.

**Key words** phantasy, unconsciousness, drive, psychic reality, Freud, Klein

**요약** : 환상은 인간의 정신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메타심리학 임상 개념으로 심리내적 구조와 외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적 현실이다. 환상은 무의식적 소망충족이 이루어지는 장이면서 사디즘과 불안의 도피처, 그리고 증상이 형성되는 심리적 공간이다. 욕망의 구조화과정에서 환상은 욕망의 재현과 충동의 표상물이다. 본 논문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내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필연적 관문인 환상의 정신분석적 의미와 메커니즘에 대한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이론을 제시하며 이를 프로이트와 비교 분석한다.

**주제어** · 환상, 무의식, 충동, 심리적 현실, 프로이트, 클라인

“역동적인 심리적 현실(psychic reality)을 발견한 프로이트의 업적은 정신과정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 그는 정신의 내적 세계가 외적 세계와 달리 그것만의 역동적 법칙과 특성들을 가지며 지속적인 생생한 현실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꿈을 꾸 사람과 그 꿈, 그 사람의 심리적 역사,

신경증적 증상이나 정상적인 관심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외적 현실을 선호하는 선입견과 이를 만드는 의식의 지향성, 그리고 서구화된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의 태도인 내적 현실의 평가절하를 포기해야 한다”(18), p 81 강조는 원문)

† 교신저자 박선영(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E-mail herheyday@hotmail.com

TEL 043-230-2465, 011-9846-1399

FAX 043-230-2219

## 1. 들어가면서 : 문제의 제기

환상이란 주체가 존재하는 무의식적, 상상적 ‘장면’으로서, 방어과정에 의해 다소 왜곡된 형태 하에서의 무의식적 소망충족이다. 의식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믿어왔던 인간 주체를 탈중심화시키는 ‘다른 무대’인 무의식을 발견함으로써 프로이트는 ‘자아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집의 주인’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무의식적 소망충족으로서의 무의식적 환상은 더 나아가 무의식에 의해 규율되는 다양한 행위, 증상, 인간의 병리적, 정상적 욕망이 구조화되며 형성되는 장소를 의미한다([33], pp.314-318 참조).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상이 갖는 주체 형성의 기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라캉(J. Lacan)이 코제브(Kojève)의 헤겔(Hegel) 해석을 원용해 말했듯이 인간의 욕망은 단순히 자연적 대상이나 사물을 향한 본능적 필요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타자의 욕망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사물의 단순한 물리적 속성을 넘어서, 즉 대상의 실증적인, 자연적 성격과는 독립적으로 그 사물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며,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체의 자기 지각 및 세계 지각과 인식을 구성하며, 주체의 욕망과 그 대상이 형성하고 구조화하는 은밀한 장소인 환상’이 우리로 하여금 ‘욕망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환상이 없다면 인간의 욕망은 인간적 욕망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으로 그쳤을 것이다.

사실 이성에 병행하는 혹은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환상 개념은 정신분석 이전에도 그다지 낯선 개념은 아니었다. 예컨대 칸트(Kant)가 말하는 구상력 혹은 상상력은 감성과 오성을 연결해주는 매개적 심급으로서 주체의 인식과정에서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미 전통 철학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백일몽, 몽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환상은 인간 생활에서 누구나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환상이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던 환상에 대해 갖는 차별성은 무엇이며, 프로이트에 의해 발견되고 클라인에 의해 다시 논의된 정신분석적 의미의 환상 개념이 갖는 독특한 이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정신분석이 말하는 환상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환상은 백일몽, 몽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근원적인 무엇을 지칭하고 있다. 특히 프로이트에게 환상은 히스테리의 증상형성을 만드는 것, 즉 신경증의 원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유혹 때문에 아동기에 신경증이 형성된다는 ‘유혹설’을 포기하고 신경증의 원인으로 ‘환상설’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신경증을 발생시키는 ‘환상의 핵’으로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제시한 바 있다.<sup>1)</sup> 또한 초기에서부터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소망충족으로서의 환상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때 그는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가슴에 대한 환각적 충족이라는 의미에서 소망충족으로서의 환상 개념을 중시한다.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환상을 말하면서도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연구』[5]에서, 주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쉽게 빠지는 백일몽, 허구적 사실, 소설, 에피소드 등과 같은 ‘의식적’ 현상을 환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프로이트에 따르면 증상을 형성시키는 상상적 작용 및 장면으로서의 환상은, 무의식의 형성물 중의 하나인 꿈의 형성을 설명하는 메타심리학적 개념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적 소원성취이다. 따라서 무의식적 소원성취로서의 환상이 꿈의 형성의 근저에 놓여 있다는 프로이트의 생각은 꿈은 무의식적 소원성취라는 견해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1) 신경증의 원인으로서의 환상과 환상의 핵으로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에 대한 논의로는 홍준기, 「자크 라캉, 프로이트로의 복귀 프로이트·라캉 정신분석학—이론과 임상」, 김상환, 홍준기 공편,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11), p. 39 이하를 참조하기를 권한다

수 있다. 이렇게 무의식적 환상에 의해 구조를 부여받은 꿈은 이제 소위 ‘이차적 가공’에 의해 전의식에 도달한다. 이차적 가공이란 전치, 압축 등에 의해 왜곡된 꿈의 내용에 최소한의 질서를 부여하는 꿈의 작업으로서, 이러한 이차적 가공을 통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지하는 꿈의 명시적인 내용이 형성되는 것이다(8, p.488 이하 참조).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무의식적’ 환상의 결과로서의 꿈은 ‘(전)의식적인’, ‘명백한’ 꿈으로서 등장한다. 따라서 의식적인 백일몽이 히스테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언급과 더불어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할 문제로서, 우리는 무의식적 환상과 의식적 환상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저작 속에 구분 없이 공존하는 의식적 환상과 무의식적 환상 개념을 구분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을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무의식적 환상과 의식적 환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환상을 궁극적으로 외적 세계와 구분하며 ‘심리적 현실’이라고 명명한다. 환상의 내용에는 외적 세계, 대상에 대한 경험적 재료들이 편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상이 외적 현실과 전적으로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은 외적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것으로서, 주체의 욕망형성과 지각, 세계 인식, 행위 등을 구조 짓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상은 일종의 ‘선형적 도식’(칸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환상의 내용과 구조는 각 개인에 따라서 동일할까 아니면 다양한 모습을 갖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다양한 환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원초적 환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원초적 환상(*primal phantasy*)은 다양한 의식적, 무의식적 환상들에 근원적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프로이트는 이 원초적 환상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토템과 터부』(13)에서 프로이

트가 기술한 바 있는 부친살해, 혹은 원초적 장면 [성인에 의한 유혹, 부모의 성행위의 목적, 거세 콤플렉스]—에 근거해 설명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11, 16). 다양한 환상들에 최소한의 동일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상수로서 프로이트가 원초적 환상 개념을 도입했다면 우리는 이러한 원초적 환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원초적 환상은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인류의 선사적인 경험들이 마치 ‘집단적 무의식’으로 전승되어 특정한 내용을 가진 원초적 환상으로 각 개인에게 등장하는 것일까? 이러한 프로이트의 접근이 형이상학적, 생물학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적다면 우리는 원초적 환상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환상과 충동 혹은 신체와의 관계에 관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환상은 외적 세계와 궁극적으로 구분되는 ‘심리적 현실’이라면, 이 심리적 현실을 형성시키는 주체적 조건은 인간의 충동과 혹은 충동의 일차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인에 따르면 실제적 환경 혹은 외적 세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내적 세계, 환상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된다. 인간은 생후 초기부터 부모의 젖가슴과 남근, 내사된 대상 등 부분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들은 어린 아이의 무의식적 사고를 채우며 개인적 특성과 성격, 그리고 외적 세계를 조형한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적 환상, 곧 심리적 현실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였다면 클라인은 특히 어린 아동의 정신과정에서 이것이 갖는 강력한 영향력을 확증하였고 인간의 충동적, 육체적 활동과 연관해 환상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를 수행했다.

정신분석은 ‘심리적 현실’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에서 심리적 현실의 중요성을 배제한다면 임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인간의 정신과정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간을

사회학적, 혹은 경제적 변수로 환원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심리적 현실은 외적 현실의 전조([25], p.152)라는 클라인의 정신분석적 주장은, 외적 현실에 대한 관계는 내적 현실을 매개로 형성되므로 인간 주체의 외적 현실에 대한 태도는 그의 내적 현실과 정서에 대한 태도와 상응한다는 것을 함축한다([36], p.264). 내적 세계는 유아의 무의식적 사고에 세워지고 유아의 실제적인 경험과 외부 세계로부터 받는 영향에 상응하며, 동시에 아이 자신의 환상과 충동에 따라 조형된다([27], p.313 참조). 따라서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는 실제적 어머니 그 자체라기보다는 유아의 심리적 현실 속에서 왜곡과 변형을 거쳐 존재하는 ‘환상화된 어머니’이다.

인간 정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이해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프로이트가 강조했듯이 의식적인 속성과 계량화된 분석의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보편적 주체이기 전에 ‘구조의 특수성을 가진 개별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 구조는 메타심리학적 고찰과 분석을 통해 파악된다.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임상이론을 통해 우리는 익숙하다고 자인하여 왔지만 실상은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인간 의식 이면의 무한한 심리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정신분석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정신과정을 조형하는 환상, 그리고 환상을 작동시키는 충동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환상 및 충동의 이해는 곧 주체의 심리메커니즘을, 더 나아가 외적 세계로 드러나는 의식적, 무의식적 행위에 대한 심원한 통찰을 제공한다.

## 2. 환상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해

### 2.1 환상과 사후성, 유혹설과 환상설

프로이트는 처음에 환상이라는 용어를, 기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기억이 아닌 심리적 구성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성물은 주체의 실제적 기억을 보호하는 방어적 허구물(defensive fictions)이라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sup>2)</sup> 히스테리 혹은 신경증의 발병을 유혹설이 아닌 환상설로 대체하면서, 히스테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 수도 있으며, 주체가 사후적으로(retroactively) 조직한 구성물임이 드러난다. 이는 ‘무의식의 사후성’이라는 구조적 개념이 들어서는 배경이 되며, 프로이트는 1897년 빌헬름 플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sup>3)</sup>

무의식은 현실기호가 존재하지 않는 무시간성 속에서 존재한다. 유아기 사건의 실질적 발생 여부보다는 이후 환상 속에서 마치 발생한 것처럼 조직되는 심리적 구조는 실제 사건만큼이나 강력한 현실성을 갖는다. 신경증이란 경험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성적으로 성숙한 후에 그 경험이 하나의 기억으로 재생되어 남는 외상이다. 사후에 구성되는 그 기억은 곧 현실적으로는 부재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현실로서 주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다.

2) 이에 대한 프로이트의 서술은 특히 연젠의 『그라디바』에 대한 분석에서 하놀드의 망상이 드러내는 환상의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10]

3) “일반적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생각이 내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나에게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질투를 발견했고 지금은 그것들을 초기 유아시절의 보편적인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 ) 그렇다면 ( ) 왜 오이디푸스 왕의 운명의 드라마가 그렇게 비참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모두가 그것의 존재를 자신 속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강제를 그리스의 전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스 비극을 듣는 사람은 모두 ( ) 잠재적으로 그리고 환상 속에서 그러한 하나의 오이디푸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현실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 꿈의 충족으로부터 몸서리치며 도망갑니다 자신의 오늘날의 상태와 유아적 상태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충동원해서 말입니다.”(빌헬름 플리스에게 보내는 편지, 1897년 9월 21일 Sigmund Freud, 「Letter 71」, 1897 [6], pp.263-266)

“우리가 우리의 아동기로부터 어떠한 기억을 갖는가의 여부는 진정 의문사항이다. 아동기와 관련한 기억들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억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아동기 기억들은 우리에게 최초의 시기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기억들이 환기되는 나중 시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환기에서 아동기 기억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 시기에 형성되었다.”(171, p. 322)

이러한 발견과 더불어 프로이트는 1896년에서 1906년에 걸쳐 출판한 저작들, 즉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등에서 무의식의 메커니즘, 즉 환상의 변형을 야기시키는 과정에 대해 탐구한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환상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무의식 일반에 대한 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병리현상의 원인에 대한 탐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프로이트는 『유아신경증의 역사』(늑대인간 사례)[16]에서 신경증에 걸린 유아의 꿈속에 등장하는 병리적 요소의 원인을 실제로 발생했다고 가정되는 원초적 장면에서 상세하게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작업은 환자가 보고하는 말 속에서 부모의 성행위 장면을 재구성하기 위한 프로이트의 시도에서 다시 반복된다([16], pp.55-56).

여기에서 ‘유아의 성욕’을 발견하고 ‘환상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유혹설’의 근간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입장을 단순히 모순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미 성욕을 가지고 있는 유아의 성적 활동, 충동의 활동을 촉발시키는 것은 타자 - 부모와 같은 성인 - 이기 때문에 아이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성인에 의한 유혹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아이는 이미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외상으로 남을 수 있는 경험들은 상당히 폭넓게 존재한다. 넓은 범위의 성적 경험들은 지각하는 주체에 따라, 그리고 주체의 무한한 환상 작용에 따라 성인의 의도적인 성적 유혹만큼이나

외상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환상설로의 전환은 유혹설의 완벽한 포기가 아닌, 유아의 성욕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과 더불어 여전히 유혹설의 의미를 유지한다. 즉 특별한 성적 사건을 떠나서 성적인 관심과 행위가 유아기부터 인간의 정신생활을 지배하는 주요 메커니즘임을 프로이트가 인식하였기 때문에, 유혹설을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신경증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는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2.2 타자의 욕망과 향유에 대한 방어로서의 환상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심리적 현실로서의 환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환상은 심리적 현실로서 외적 세계와는 철저히 구분되는 것이지만, 주체의 외적 세계를 구성하고 이 외적 세계와의 관계양상을 구조 짓는 것으로서 이 환상은 역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달리 말해 환상은 외적 현실과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과 요구, 향유 - 타자에 의해 주체에게 야기되는 외상 혹은 ‘유혹’ - 에 직면해 주체가 이 외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이 타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라캉은 이와 관련해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공식으로 간략히 정리한 바 있다.

왜 인간은 환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욕망의 차원에는 반드시 파악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항상 타인을 만나고 산다. 그런데 타인의 시선, 음성, 혹은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의 환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 의미를 알 수 없는 몸짓과 눈빛. 왜 그(녀)는 나를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일까? 그(녀)가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 스스로에게 항상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자주 다투는 부모를 둔 아이는 “엄마, 아빠는 왜 결혼했을까?”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결혼을 통해 생겨난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이 아이가 원초적 장면 - 부모의 성행위 장면 - 을 목격하게 되면 그는 성행위를 서로를 공격하는 싸움으로 해석한다. 환상 혹은 환상적 해석은 인간의 욕망형성에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흔적을 남긴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왜 엄마는 나를 때리는 것일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 처벌 ’을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환상 속에서 결론짓고 이에 고착된다면 이 아이는 마조히즘적 성격을 가진 주체가 될 것이다. “당신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부모가 이러한 말다툼을 할 때 항상 일방적으로 아이 편을 드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는 아버지를 자신의 경쟁자로, 그리고 자신을 ‘ 아버지에게 의해 박해받는 ’ 어머니의 구원자로 생각한다. 신경증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요컨대 환상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타자의 욕망과 향유 앞에서 이 타자의 욕망과 향유의 의미를 파악하고 규정하고자 하는 주체의 반응 혹은 대답이다. 달리 말하면 환상은 무의식적 사고활동의 방향과 의미를 제시해주는 ‘ 조직자 ’이다. 따라서 환상은 타자의 욕망에 대한 방어이기도 한 것이다. 주체는 타자와 만날 때 타자가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 보다 일반화해 말한다면 환상은 주체를 고통스럽고 불안케 하는 심리적 외상, 실제, 타자의 향유, 그리고 타자의 가늠할 수 없는 욕망을 길들여 이것들을 ‘ 받아들일 만한 것 ’으로 변화시키려는 방어수단이다 ([32], p.109 이하 참조).

따라서 심리적 실재로서의 환상이 외적 세계와 구분되고, 환상은 사후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의미의 환상이 주체의 구체적인 타자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 타자와의 관계 ’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환상의 배후에 놓여 있다고 간주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서의 ‘ 유혹 ’은 여전히 환상과 신경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 2.3 원초적 환상

프로이트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는 환상을 형성시키는 어떤 보편적인 환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를 프로이트는 원초적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초적 환상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개인이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사건일 수도 있다. 프로이트는 원초적 환상의 배후에 놓여 있는 원초적 장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건이 원초적 환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류가 과거에 집단적으로 체험한 사건이 계통발생적 (phylogenetic) 전달을 통해 개인의 원초적 환상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예컨대 『토템과 터부』[13]에서의 원초적 아버지의 살해).

프로이트의 원초적 환상에 대한 논의가 가지는 ‘ 실재론적 ’ 경향을 논외로 한다면 원초적 환상은 주체의 환상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플랑슈와 폰탈리스는 ‘ 원초적 환상은 근원(originals)에 관한 환상 ’이라는 점을 강조한다([33], p.332). 그들은 프로이트가 이해한 바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으로서의 원초적 장면이라는 개념과 거리를 취하는 것이다. 부모의 성행위에 관한 환상은 주체가 자기 자신을 수태하는 부모의 행위에 대한 상상적 목격을 의미하며, 부모에 의한 유혹에 관한 환상은 자신이 수태와 탄생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환상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상징적 세계 속에 존재하므로 근원 - 실제 - 으로부터 분리된 어린 주체가 자신의 ‘ 결여 ’를 메우기 위해 상징적 관계를 실제적 - 육체적, 직접적 - 관계로 다시 환원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거세환상에서 실제와 상징적인 것 사이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메우려는 시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거세환상은 (생물학적 의미의) 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아이와의

불가능한 결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근원적 합일예의 환상의 표현이다. 이렇듯 ‘근원적 환상은 상징계 — 법, 질서, 언어의 세계 — 속에 존재하는 주체가 자신의 존재 결여를 채우려는 상상적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2.4 무의식적 환상의 출발점 자기성애

생후 초기 환각(hallucination)에 의한 만족의 시도는 클라인에 따르면 특히 빨기로 대표되는 구순적 충동에 의한 젓가슴의 내사를 유도하면서 가장 원시적인 환상의 모습을 구성한다. 내사와 투사작용에 의해 수행되는 환각은 경험의 주관적 해석행위로 환상화된 삶의 기초를 형성한다. 프로이트는 내사를 말하면서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신기능의 두 개의 원칙에 대한 공식』[12]에서 무의식적 환상의 개념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급을 한다. “현실원칙의 도입과 함께 한 종류의 사고행위(thought-activity)가 분열되었다. 그것은 현실검증과는 별개로 유지되고 오직 쾌락원칙에 종속된 채로 남아 있다. 이 행위는 ‘환상작용’이며 이는 이미 아동의 놀이에서 시작되고 나중에는 ‘백일몽’으로 지속되며 현실대상에 대한 의존을 포기한다.”([12], p.222. 강조는 원문)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환상을, 현실원칙의 제약을 상상적으로 벗어나는 쾌락원칙 속에서 무의식적 소망을 충족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상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시기를 언제로 간주할 수 있는가? 현실원칙이 적용되어 어린이가 무제한적인 만족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어린이는 현실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환각 혹은 환상 속에서 무제한의 쾌락원칙을 추구함으로써 환상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자. 이미 프로이트는 자기성애(auto-eroticism)를 설명하면서 환상의 시기를 앞당기고 그 개념을 정교화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자기성애는 본질적으로 환상 혹은 환

각을 동반하는 단계이다. 자기성애란 무엇인가? 어떤 대상도 갖지 않으며 자기의 육체에서 리비도의 만족을 누리는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지만, 『성에 관한 세 편의 논문』에 덧붙인 1920년의 추기([9], p.226, n.1)에서 프로이트는 사춘기의 환상의 활동은 사춘기와 사춘기 이전의 시기 사이에 놓여있는 시기, 즉 잠재기에서의 자위행위와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프로이트에게 자기성애란 단순히 생후 초기, 즉 유아가 어떤 대상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육체로부터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33], p.46 이하 참조). 오히려 프로이트는 자기성애를 상당히 발전된 시기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성애란, 아이가 현실원칙에 직면해 — 상징계에 진입한 후 — 실제적 대상, 예컨대 어머니의 가슴을 상실한 후 환상 속에서 이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환상은 대상의 실제적 상실 이후 환각이라는 형태로 그 대상에서 원래 누렸던 만족을 되찾고자 하는 주체의 활동’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단순히 자기의 육체에서 만족을 누리려고자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적 의미의 성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자기성애적 만족에 동반되는 환상행위는 인간은 순수한 생물학적 욕구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의 대상(예컨대 어머니의 가슴)을 상실한 후, 사후에 이 생물학적 대상에 대한 만족을 환상 속에서 추구한다. 생물학적 의미의 대상이 상실되어 완전한 만족을 주는 완전한 대상으로 재구성되어 다시 발견해야 할 대상으로 등장할 때 인간적 의미의 성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대상의 발견은 (상실한) 대상의 재발견’이라고 말한다([18], pp. 237- 238). 유아의 구순적 충동이 성적 의미를 지닌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의식적 소망충족으로서의 환상은 단순

히 육체적 욕구의 만족이 아니라 성적, 리비도적 충동 혹은 욕망의 실현의 환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무의식적 소망충족으로서의 환상은 따라서 동시에 이 환상의 완벽한 실현을 금지하는 금지의 흔적과 더불어 주체의 무의식 속에서 상연된다. 달리 말하면 소망의 충족은 동시에 그 소망의 달성의 금지와 융합된 상태로 등장하며, 바로 이러한 특성이 환상이 가지는 애매성을 표현한다. ‘환상은 상징계, 즉 법과 근친상간 금지법에 의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외상—에 대한 극복인 동시에 이러한 외상 자체의 흔적을 동시에 상연하는 이중성’을 갖는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증상과 꿈이란 본능적 충동과 방어간의 타협의 산물인 것도 환상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환상은 충동의 ‘정신적’ 표현이고 또한 그 충동에 대한 방어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주체는 환상작용을 통해 외상을 극복하는 동시에 그 외상의 흔적을 환상에 남긴다.

이제 이하에서 환상이 발생하는 토양인 충동과, 환상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3. 클라인의 환상론 : 임상적 고찰

#### 3.1 육체감각, 충동과 환상의 관계, 그리고 박해불안의 방어로서의 환상

“우리는 아동의 초기 현실이 거의 환상적임을 안다 아동은 불안의 대상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배설물, 기관들, 대상들, 그리고 살아있거나 생명이 없는 사물들이 서로 상응하기 시작한다 자아가 발달함에 따라 현실과의 진정한 관계는 이러한 비현실적 현실로부터 정립된다 이렇게 해서 자아의 발달과 현실에 대한 관계는 매우 이른 시기에 초기 불안상황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자아역량의 정도에 의존한다”(124), p 238)

어린아이에게 환상은 곧 사고이다. 어떠한 행위, 사물에 대한 사고, 대상관계 등에 대한 아이의 관념은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조형되는 환상작용이다. 아이의 환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론이

나 심리상태로 구성되지 않으며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파악할 수도 없다.

아이작스는 환상의 무의식적 잠재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한다. 이는 어린 유아의 생후 초기 강렬한 구순적 욕망에 근거한 환상이 이후 발달에서 어떻게 의식화되어 유아의 심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언어발달이 미숙한 1세 8개월 된 여아는 영혼이 상실된 어머니의 신발을 보았고 공포에 질린 경험이 있었다. 약 1주일 간 여아는 어머니가 신발을 신으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물러섰고 한동안 어머니가 밝은 색의 신발만을 신는 것을 견딜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아는 그 악몽을 잊어버렸고 어머니도 다른 색의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 이후 2세 7개월 때 여아는 갑자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어머니의 찢어진 신발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그것들을 버렸다고 대답했다. 다음 그 여아는 그 신발들이 자신을 먹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120, p.85 참조). 언어 이전 단계부터 오랫동안 유아를 지배하며 유아의 공포증을 야기했던 구순환상은 유아의 마지막 말에서 잘 나타난다. 유아에게 찢어진 신발의 영혼은 곧 위험한 입이었고, 언어 이전의 이 경험의 기억은 먹어 삼켜지는 두려움의 경험이며 유아에게는 너무나 사실적인 것들이었다. 언어와 함께 비로소 유아의 무의식적 환상은 조직화되고 상징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례는 언어 이전의 원초적 환상, 특히 신체적 행위와 결부된 무의식적 환상은 포기되지 않고 언제나 잠재적으로 무의식적 존재로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생후 초기부터 유아들은 자극에 대해 즉각적인 환상으로 반응한다. 좌절을 포함한 불쾌한 자극에 대해서는 공격적 환상으로, 만족감을 주는 자극에 대해서는 유쾌한 환상으로 세상과 소통한다(126, p.290). 최초의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젖가슴이 주는 충족과 좌절은 유아의 내·외적 세계를 조형하며 이 역동적 상호과정은 환상작용과 결부된다. 좋은 외적 경험은 내면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내적 세

계의 안정감은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다시 이는 박해적이고 위협적인 환상을 감소시키는 우호적인 순환관계가 형성된다. 또 생후 초기부터 유아들은 좋은 어머니와 착한 마술사 등을 닮은 이상화된 대상과, 한편으로는 괴물 및 마녀와 같은 무시무시한 대상들의 환상의 지배를 받는다. 이 환상들은 그들의 실제 부모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 아이의 지각과 환상이 최초의 원시적인 사랑과 증오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를 병합(incorporation)해온 아기는 깊은 무의식적 환상이 경험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부모가 자신의 신체 안에서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것들은 내가 명명한 것처럼 아기의 정신 안에서 ‘내적’(internal) 혹은 ‘내부적’(inner) 대상들이다 이렇게 해서 내적 세계는 아이의 실제적 경험, 그리고 사람들과 외적 세계로부터 얻은 인상들과 상응하여 아이의 무의식적 정신 안에서 세워지지만 또 그 자신의 환상과 충동자극에 의해 바뀐다 만약 사람들의 세계가 상당히 평화롭다면 자아와 함께 내적 조화와 안전감, 그리고 통합이 일어난다”(127, pp 312-313)

환상은 꿈의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의식에서 수용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소망을 충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원초적 불안에 대한 방어메커니즘이기도 하다. ‘환상은 불안, 그리고 죄의식과 긴장의 감소를 제공하며, 감당하기 힘든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신경증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현실의 적은 부분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반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부정하는, 일종의 타협을 만들어냄을 클라인의 분석사례들에서 볼 수 있다. 유아들의 놀이에서 잘 드러나는, 예를 들면 강박충적 현상은 환상의 억제와 현실에 대한 방어적 관계간의 타협이며, 이는 제한된 형태의 만족감을 아이에게 부여한다(131, pp.222-223 참조). 반면 정상적인 유아들의 놀이는 환상과 현실간의 적절한 균형을 보여준다. 외적 현실과 무의식적 환상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이들의 환상은 현실로, 그

리고 내적 현실로부터의 도피수단이자 방어메커니즘이다. 환상은 외적 현실뿐 아니라 주체 자신의 충동과 사디즘,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에 대한 방어 및 적응과정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정신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는 클라인의 시각에서 환상은 욕망충족적일 뿐 아니라 박해적이라는 점과 연계된다. 환상은 곧 주체 자신의 사디즘에서 비롯된 박해불안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어린 유아의 정신과정에서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파괴하는 억압할 수 없는 충동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보면서 그의 대상을 공격하고 구원하는, 서로 길등하는 원초적인 힘이 작용함을 인식했다 이는 나에게 프로이트의 삶과 죽음본능[죽음충동—필자에 대한 중요한 ‘임상적’ 의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다”(130, p 236 강조는 원문)

무의식적 환상은 신체와 정신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정신 혹은 심리구조는 환상을 경유해 신체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체적 경험이 유아의 기억을 형성하고 외적 현실이 환상의 구조로 편입되며, 동시에 내적인 충동자극이 환상을 구성한다. 이러한 환상은 언어 이전의 원초적 정신과정이며 무엇보다도 ‘정서논리’(logic of emotion)(120, p.84)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환상은 발달단계에 따라서 육체감각, 시각충동, 그리고 언어화될 수 있는 충동의 표상으로 진행된다.

생후 초기 유아의 자아인식은 신체자아(body ego)에서 출발한다. 동일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존재하는 육체감각은 경험을 조형하고 객관적 현실을 수용하고 구성하는 기초를 이룬다. “자아는 궁극적으로 신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육체감각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자아는 신체 표면의 정신적 투사로 간주될 수 있다.”(171, p.26, n.1). 즉 육체와 관련한 충동과 감각의 경험 등은 자아발달의 중요한 요소로서 신체적 경험이 없다면 정신구조도 없다. 동시에 환상과 같은 정신작용도

신체적 감각과 결부된다. 유아에게 이 환상은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하여 현실적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각된다.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먹기 혹은 빨기와 같은 신체적 행위는 내사, 병합, 투사와 같은 심리적 활동과 연계된다. 육체감각과 신체를 이용한 기능들은 정서의 표현수단이다. 유아에게 자신의 신체는 외부 세계와의 소통수단이며 사랑과 증오를 드러내는 메커니즘이다. 또 육체감각들은 인격화되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화되어 연계된다. 유아는 욕구의 좌절이나 신체적 불편함 등을 나쁜 대상으로 지각되는 신체들에 의한 공격적 행위로 느끼며 반대로 편안함과 같은 유쾌한 육체감각들은 좋은 대상으로부터 유래하는 정서로 느낀다([28], p.202 참조).

“[유아에게—빨지] 배설행위, 방귀를 꾸는 것, 오줌 누기 등은 모두 불태우고 부식시키며 독살하는 행위들로 느껴진다. 유아의 환상 속에서 배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신체 기능들은 공격적(사디즘적—원문) 방출과 투사의 목적에 봉사한다. 팔과 다리는 대상을 때리고 차고 짓밟을 것이다. 입술과 손가락, 손은 대상을 빨고 비틀고 꼬집을 것이다 (·) 사람들은 생후 초기 어린 아기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느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일종의 ‘관념’(idea)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환상에서 이러한 모든 사디즘적 행위들은 자기로부터 위협을 축출할 뿐 아니라 대상에게로 그 위협을 전이하려는(투사—원문) 것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그 대상에 의한 보복의 불안이 뒤따른다.”([35], p 407 강조는 원문)

환상의 발달은 인지적 발달과 유기인 관계를 맺고 있다. 풍부하고 세련된 환상의 발달은 곧 상징의 발달로서 주체화의 출발점을 이룬다. 이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생후 초기 어머니의 젖가슴과 몸에 대한 원초적이고 잔인하며 사디즘적인 환상은 발달과 함께 없어진다. 성적 충동의 억압과 이로 인한 환상작용에서 비롯되는 증상은 동시에 환상을 통한 불안의 완화를 시도한다. 아동의 놀이는 이러한 환상작용이 이루어

지는 상징의 장이다. 클라인의 분석사례들에서 문법을 배울 수 없었던 여아의 심리에는 사디즘적 환상이 지배하고 있었고, 나눗셈을 할 수 없었던 남아의 무의식에는 나눗셈의 메커니즘이 어머니의 몸을 자르는 것을 상징하였다. 클라인은 아이의 이러한 역동을 해석하였고, 이후 아이는 나눗셈과 관련한 불안과 억제행동을 해소할 수 있었다[21]. 불안은 필연적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적 환상을 만들어낸다. 환상작업을 통해 유아는 깊은 층위의 심리적 불안의 완화를 경험한다. 최초의 환상, 몸과 몸 안의 내용물에 대한 원시적인 구순환상은 본질상 유아기적 전능성을 표현한다. 특히 전능성이 두드러지는 환상에서 욕망은 사라지고 이 환상은 곧 망상이 된다([38], p.309). 그러나 인지적 발달을 이루면서 더 넓고 다양한 상징의 세계로 들어감에 따라 전능성은 사라지고 몸에 대한 구체적이고 원시적인 환상도 감소한다. 즉 상징적 대등(symbolic equation)에서 이제는 상징되는 대상과 상징을 분리하게 되는 진정한 상징주의(symbolism)가 시작된다.<sup>4)</sup>

4) 지면의 제약상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상징의 형성은 자아에서 주체로, 정신병에서 신경증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표식이다. 상징적 표상에서 상징은 본래적 대상을 대체하지만 그 상징의 현실적 차이는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그러나 상징적 대등은 상징을 상징으로 느끼지 못하고, 원초적 대상 그 자체로 느낀다. 이는 곧 주체와 대상간의 미분화된 경계, 상징과 상징화된 대상간의 미분화로 인한 결과로서, 사물과 표상간에 있어야 하는 ‘차이’의 존재 여부가 이 둘을 구분한다. 상실한 대상을 ‘사물 그 자체’로서 무의식적 환상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표상’을 경유해서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은 상징적 주체로 서게 된다. 주체 자신에게 절대적 충족을 준다고 상상되었던 대상의 영원한 부재를 인식함과 함께 차이는 온전한 주체로 나아간다. ‘상징’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저작 외 특히 비온(W. Bion), 시걸, 옥덴(T. Ogden), 크리스테바(J. Kristeva), 머니 크라일(R. Money-Kyrle), 로즈(J. Rose) 등의 글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 3.2 충동<sup>5)</sup>과 환상, 그리고 대상

“최초의 환상은 신체적 충동자극에서 나오고 신체적 감각과 섞여 짜인다 그것들은 주로 내적, 주관적 현실을 표현하며 제한적이지만 처음부터 실제적인 객관적 현실의 경험과 관련된다 (….) 환상은 명료한 외부 지식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환상의 근원은 내적인 본능적 충동자극에 있다”(L20, p.86 강조는 원문)

환상은 충동 안에 정박하고 충동은 환상을 통해 가시화된다. 주체는 상실한 생후 최초의 만족을 다시 얻고자 노력하며 여기에서 환상은 곧 욕망과 연계된다. 그렇다면 충동이란 무엇인가? “충동은 결코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충동을 대리하는 관념(idea)만이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무의식 안에서도 충동은 관념에 의하지 않고서는 대리될 수 없다. (….) 충동자극의 표상적 대리자는 [기본적으로 - 필자] 무의식적이다. 이러한 [속성을 갖는 - 필자] 충동자극 이외에는 [정신분석에서 - 필자] 다른 어떤 것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L15, p.177)<sup>6)</sup>

프로이트는 충동을 모든 심리적 에너지의 근원이자 정신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자극제로 설명하며,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개념으로, 유기체 안에서 발생하여 정신에 도달하는 심리적 표상

물(psychic representative)로, 그리고 정신이 육체와 연관된 결과로 정신에 부과된 일정 수준의 요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L13, pp.121-122). 환상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충동이 갖는 이러한 모습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의 차별성과 존재성을 구현하는 메커니즘이다. 본질적으로 타자성을 가지면서 욕구(need)가 아닌 욕망(desire)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충동의 표상은 환상이고, 그 환상 안에서 주체는 충동의 일시적인 만족을 실현한다.

환상이 충동의 정신적 표현이라는 의미를 아이작스는 어린 아이의 다음과 같은 말들에서 풀어낸다(L20, p.82 참조). 예를 들어 배고픈 유아, 어머니의 젖가슴을 욕망하는 아기는 ‘젖꼭지를 빨고 싶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고, 이 환상이 불안과 결합하여 강렬하게 나타날 경우 ‘어머니를 모두 먹어버리고 싶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다. 또 어머니의 상실을 피하거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어머니를 내 안에 들이고 싶다’는 환상을 드러낼 수 있다. 아기가 좌절감을 느꼈을 때 공격적 충동이 강해지며 이 경우 ‘젖가슴을 깨물고 싶다’고 느낀다. 따라서 아기는 손가락 빨기와 같은 자가성애적 만족에서 나타나는 환상 혹은 환각적 체험을 통해 그 상실을 극복하려 한다. 충동을 상징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무의식적 환상을 만들어내고, 억압되지 않은 강렬한 무의식적 충동 혹은 환상은 육체를 통한 증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환상들은 유아에게 매우 구체적인 사건으로 경험된다. 즉 무의식적 환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내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이는 신체발생적인 감각에서 기인한다.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는 유아는 손가락, 입을 빨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젖가슴을 빨거나 내사하고 자신 내부에 젖을 주는 좋은 젖가슴을 소유하는 환상을 갖는다. 또 배고프거나 불쾌한 감각은 나쁜 대상과의 관계가 표현되는 것으로 이 나쁜 대상은 유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진다(L19, p.34 참조).

유아의 발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5) ‘충동’을 의미하는 독일어는 Trieb, 영어로는 drive이지만, 스트레치(J. Strachey)가 프로이트의 독일어원전을 영역하는 과정에서 ‘본능’을 의미하는 instinct로 오역되었다. 프로이트는 본능을 의미하는 Instinkt라는 단어를 Trieb과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충동과 본능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본능은 어떤 예외나 상징적 의미가 없으며, 정해진 특정 행위로 인간을 이끈다. 그러나 충동은 이러한 본능에 기초를 두지만 상징적 구조가 작동하며 예외와 일탈을 허용한다. 그리고 본능과 달리 충동은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만족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더불어 클라인을 비롯하여 영미권의 클라인주의자들이 쓰는 본능은 충동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주지해야 한다.

6) 프로이트적 의미의 충동 개념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홍준기, 「충동, 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성의 성욕」, 『성과 철학』, 철학연구회 편, 철학과학실사, 2003[2], pp. 317-323를 참조하라

어려움은 유아의 환상을 파악할 때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령 섭식장애나 배설장애, 낮선 사람에 대한 공포와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 등의 현상 이면에는 이를 지배하는 환상이 자리잡고 있다. 섭식장애는 이유기 이후 강렬한 사랑과 증오의 구순적 소망과 연계된 불안에서 유래함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정대상인 젓가슴을 깨물고 먹어 삼키는 파괴의 두려움이 섭식을 방해한다. 섭식장애는 지적 발달의 억제, 곧 인식지향적(epistemophilic) 충동의 억제로 귀결된다. 사디즘에 의한 죄의식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구순적 욕망이 지적 욕망으로 승화되는 경우에 구순적 리비도의 요소는 지적 발달을 추동한다.<sup>7)</sup>

지금까지 기술해왔듯이 모든 ‘충동과 욕망에는 이것들이 지향하는 대상이 존재하며 환상은 이 지점에서 형성’된다.<sup>8)</sup> 욕망은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을 전제하며, 여기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환상이 작동한다.

“처음부터 모든 정서들은 첫 번째 대상에 부착된다 만약 파괴적 충동자극, 시기심, 그리고 박해불안이 과도하다면 유아는 외부 근원으로부터의 모든 좌절을 왜곡하고 과장하며, 어머니의 젓가슴은 외적, 내적 박해대상으로 우세하게 변한다”(129, p 234)

유아에게 최초의 만족이자 최초의 좌절을 안겨주는 첫 번째 대상은 어머니의 젓가슴이다. 어머니의 젓가슴에 대한 유아의 충동은 수유에 대한 유아의 생물학적, 유기체적 욕구와 함께 환상에 표상되어

나타난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젓가슴’은 유아의 ‘영원한 욕망의 대상’이다. 따라서 그 젓가슴은 맨 처음 내사된다. 환상에서 유아는 젓가슴을 빨고 씹고 삼킨다. 그렇게 해서 유아는 자신 안에 어머니의 젓가슴을 소유한다고 느낀다.”(126, p.291. 강조는 필자).

페렌치는 틱(tic)장애를 심리적 에너지의 방출로서 대상이 없는 자가성애의 일차적 나르시시즘의 표현으로 본다[3]. 그러나 클라인은 순수하게 대상 없는 시기는 없다는 전제 하에 일차적 나르시시즘을 부정한다. 앞에서 상세히 논한 것처럼 프로이트에게서도 자가성애는 단순히 대상을 갖지 않는 일차적 나르시시즘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클라인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틱장애는 대상이 부재하는 나르시시즘적 증상 혹은 리비도가 자아에게로 집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아의 내적 대상들에게로 리비도의 집중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클라인의 시각이다. 틱장애의 이면에는 대상관계의 문제가 존재하며, 대상에 대한 구순사디즘적, 항문사디즘적, 생식기적 충동자극이 작용한다. 펠릭스에 대한 분석에서 클라인은 틱장애도 무의식적 환상 — 특히 동성애적 소망이 잠재되어 있는 자위환상 — 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임을 보여준다.

대상은 충동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사물이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리비도적 대상의 추구라는 점에서 그 대상은 실제적 대상인 동시에 심리적 대상이기도 하다. 육체적인 동시에 심리적인 구조이며 결코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충동의 속성은 인간이 갖는 리비도적 욕망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완벽한 충족을 얻지 못하는 인간 욕망의 본질은 충동의 속성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충동 혹은 리비도적 욕망의 대상은 가시적인 현실대상 같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영원한 심리적 대상이다. 완벽한 충족을 가정하는 원초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생겨나는 균열은 이러한 틈을 매우고자 대상을 만들어낸다. 상실과 결여의 효과로 환상 속에서 대상이 창

7)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의 예는 슈미더버그의 1934(136)년 논문을 참조하기를 권한다

8) 여기에서 우리는 리비도는 쾌락추구가 아니라 대상을 추구한다는 페어번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페어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 리비도적 쾌락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대상으로 가는 이정표를 부여한다 ”(14, p 33) 즉 프로이트가 리비도는 충족을 지향한다고 말할 때는 이미 충동 자신의 대응물로서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페어번의 ‘대상관계’ 이론은 프로이트의 텍스트에 대한 오해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된다.

#### 4. 맺음말

클라인 정신분석에서 특히 환상에 관한 논의는 모든 정신적, 심리적 행위에 이미 대상관계가 내재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충동과 충동의 대상, 그리고 환상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클라인에게 환상은 충동의 정신적, 심리적 표현으로서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처음부터 충동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본다. 젓가슴이나 젓꼭지, 남녀의 성구분과 생식기에 대한 '내재된 지식'(innate knowledge)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대상관계의 양식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충동이 구조화된다. "매우 어린 아이들도 출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궁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사실에 대한 매우 명확한 '무의식적' 지식을 갖고 있다."(122, p.188. 강조는 원문).

이렇게 본다면 환상은 이미 주체에게 주어진 내재적, 보편적 심리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프로이트는 클라인처럼 유아들이 생후부터 '완벽한' 성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즉 프로이트와 달리 클라인은 '생득적 지식'을 말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형이상학적' 가정을 취했으며, 이 점에서 프로이트와 구분된다. 클라인의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가정 그 자체를 지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형이상학적 가정을 완화된 형태로 해석한다면, 충동과 환상의 대상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존재한다는 클라인 출발점은 타당하며, 이 점에서 클라인은 프로이트와 유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9)</sup>

9) 출생과 함께 갖고 있다고 가정되는 '구조'는 환상의 모든 인지적 사고의 틀을 마련한다. '내재된 지식'은 비온이 말하는 전지각(preconception), 즉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를 위한 틀을 갖춘 내재적 구조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비온의 인지구조에 대한 능력은 거의 선천적인 특질이다. 유아가 어머니의 젓가슴에 대해 갖는 '내재된 전지각'(innate preconception)은 발달에서의 타고난 지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면서 클라인의 환상이론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덧붙이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클라인은 환상과 충동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클라인이 말하는 환상은 전언어적(preverbal)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예컨대 아이작스는 일차적 환상(primary phantasy)은 심리적 과정과 결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언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클라인은 (좁은 의미의) 언어 그 자체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립적 쌍 - 이원적 구조, 즉 좋은 대상/나쁜 대상 - 을 이미 가지고 있는 충동(의 대상)과 환상을 자신의 정신분석이론의 핵심적 내용으로 삼

---

젓가슴에 대한 내재된 전지각은 클라인이 말하는 '계통발생적 지식'(phylogenetic inheritance)이기도 하다. 이는 프로이트가 성충동, 성에 대한 원초적 환상을 계통발생적으로 주어진 심리구조라고 언급한 것에서 연유하며 이 점에서 클라인의 관점도 프로이트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프로이트에게서 이러한 선천적인 지식이 행하는 역할은 그리 크지 않으며, 이 점은 사실 클라인 정신분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비록 클라인이 선천적 지식, 본능 등 타고난 그 무엇을 강조하는 말을 했지만 사실 클라인 정신분석은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가정이 없다고 했을 때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클라인의 이론의 전체 구조도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클라인이 말하는 계통발생적 지식은 타고난 구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 즉 충동과 대상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환상을 형성시키는 인간과 대상관계의 구조를 의미한다. 크리스테바는 칸트가 말하는 '선형적 지식'(knowledge wholly a priori)을 내재된 구조들에 비교한다. 이는 클라인과 비온이 말하는 선천적 지각인식을 어머니의 젓가슴에 대한 타고난 지각들로 보는 경험주의적 관점보다는 유아 자신의 결핍을 어머니의 가슴으로 채워야 함을 느끼는 선형적 지식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경험은 임의적이 아닌 체계적으로 조직화되며 그 근저에는 이미 내재하는 구조를 상징할 수밖에 없다. 가령 언어학에서 야콥슨(R. Jakobson), 소쉬르(F. Saussure), 촘스키(N. Chomsky), 인류학에서 레비 스트로스(C. Lévi-Strauss), 동물행동학에서 로렌츠(K. Lorenz) 등이 말하는 보다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심층적 심리구조를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를 생물학적 만능주의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클라인의 이론에서 '선형적 구조'란 바로 환상작용과 사고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의 체계이지 그것들을 구성하는 지식이 아니다.

고 있다. 따라서 환상의 충동적 활동을 (언어적 구조를 가진) 환상과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아이작스의 이론은 클라인의 본래적인 작업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클라인의 정신분석기법은 아이작스와는 달리 어떤 기표적 차원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플랑슈와 폰탈리스는 다분히 생물학적 개념으로 충동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클라인 학파이론을 비판하며, 환상을 (생물학적) 본능<sup>10)</sup>이 아니라, 이미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초적 환상'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야한다고 말한다([34], p.14 참조).

또한 클라인은 의식적 환상과 무의식적 환상을 철저히 구분해 사용한다. 클라인의 이러한 입장은 예컨대 의식적인 환상으로서의 백일몽과 근원적인 무의식적 환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도 한 번도 의식적인 것이 되어 본적이 없는 무의식적 환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의식적인 환상과 무의식적 환상을 같은 용어—*phantasy*—로 사용한 것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의식적 환상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한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식적이었던 내용들이 무의식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히스테리자에게는 무의식적 환상으로 존재하는 도착적 환상이 도착증자에게는 의식적 환상이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했듯이 꿈의 이차적 가공을 통해 잠재적이고 감추어진 꿈 내용이 전의식적인 명백한 꿈 내용으로 가공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환상은 유아기적 환상의 반복, 즉 무의식적 환상의 반복'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식적 환상과 무의식적 환상은 철저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초적 억압, 이차적 억압을 구분하는 프로이트의 메타심리학 이론에 따라

한 번도 의식화된 적이 없는 본래적으로 무의식적인 환상을 원초적 환상, 그리고 의식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차적 환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차적 환상은 무의식으로 이차적 억압을 받았는가에 따라 무의식적 환상과 의식적인 환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34], p.13 참조).

'충동의 요구(프로이트), 혹은 타자의 향유(라깡), 혹은 불안(프로이트, 클라인, 라깡)에 대한 방어로서의 환상은 상징화 작업과 더불어 이루어지며, 따라서 환상은 이미 상징화 작업을 전제'한다. 따라서 환상은 근본적으로 '서사적 구조'를 갖는다. 여기에서도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환상 개념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클라인에게 환상은 충동 혹은 본능이 정신적 형태로 표출된 후 어떤 대상을 찾아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프로이트에게 충동은 이미 서사적 구조를 가진 환상 속에서 활동하며, 이 환상 속에서 충동은 자신의 대상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환상은 무의식적 소망의 충족이면서도 소망충족의 금지를 동시에 수반한다. 환상으로서의 무의식적 소망충족은 일정 정도 향유를 포기하는 것(상징적 거세·라깡)을 동반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바 있는 슈레버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정신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너무 많은 향유의 포기로서 자기 분석한 바 있다([37], pp.209-219 참조).

그러나 라깡이 말하듯이 환상은 단순히 충동의 침입으로부터 주체를 지켜주는 스크린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환상은 환상을 통해 방어할 수 없는 충동이 드러나는 장이기도 하다. 클라인이 말하는 망상-분열적 위치(*paranoid-schizoid position*)에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서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주체의 방어메커니즘이기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리적 현상 자체인 것처럼 (혼란스럽게) 서술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클라인은 명확하게 서술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암시하고 있듯이 망상-분열적 위치에서 등장하는 이원적 구조(좋은 대상/나쁜 대상)는 이미

10)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충동을 본능(*instinct*)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어적 대립구조를 전제하는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망상-분열적 위치는 이미 우울적 위치(depressive position)를, 즉 상징적 세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한에서 망상-분열적 위치에서의 분열 현상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이미 방어로써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어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때 분열은 방어가 아니라 '병리적 증상의 표출' 혹은 환각으로서 주체는 이를 구체적인 실제적 현상으로서 느끼며 심각한 박해불안에 빠져든다.

정신병과 신경증의 차이는 이렇듯 외상적으로 경험된 사실—이는 실제적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바로 전에 언급한 예를 다시 들면 '나쁜 어머니'를 상징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주체의 무의식적 역량에 달려 있다. 정신병적 주체에게서는 상징화로부터 배척 foreclosure된 것—외상—이 실제, 즉 환각 속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한 번도 의식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의식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원초적 환상이 인간 주체의 자기 경험 및 세계 경험을 구조 짓는 '선형적 도식'이므로, 정신분석은 의식의 차원에서의 동일화 혹은 탈동일화, 달리 말하면 현실적응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보다 근본적으로 현실적응의 무의식적 근거를 이루는 환상의 분석 작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sup>11)</sup>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상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체의 선형적 도식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서 환상은 정신분석적 임상론과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서 인간 주체의 핵을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 [1] 김상환, 홍준기 공편 (2002).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서울.
- [2] 홍준기 (2003). *충동, 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성의 성욕—프로이트와 라캉을 중심으로*, 성과철학, 63, 314-358, 철학과현실사, 서울.
- [3] Ferenczi, S. (1921). *Psycho-analytical Observations on Tic*. *The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2, 1-30.
- [4] Fairbairn, R. (1941). *A Revised Psychopathology of the Psychoses and Psychoneuroses*. In: R. Fairbairn (1952) (Ed),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Routledge, London.
- [5] Freud, S.<sup>12)</sup>(1895[1893-1895]), *Studies on Hysteria* by J. Breuer and S. Freud. SE, Vol. 2, Horgarth Press, London.
- [6] Freud, S. (1897). *Pre-Psycho-Analytic Publications and Unpublished Drafts*. SE, Vol. 1, Horgarth Press, London.
- [7] Freud, S. (1899). *Screen Memories*. SE, Vol. 3, Horgarth Press, London.
- [8]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II) and On Dream*. SE, Vol. 5, Horgarth Press, London.
- [9] Freud, S. (1905).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SE, Vol. 7, Horgarth Press, London.
- [10] Freud, S. (1907[1906]). *Delusions and Dreams in Jensen's Gradiva*. SE, Vol 9, Horgarth Press, London
- [11] Freud, S. (1908). *On the Sexual Theories of Children*. SE, Vol. 9, Horgarth Press, London.
- [12] Freud, S. (1911). *Formulation on the Two Principles of Mental Functioning*. SE, Vol. 12,

11) 이에 대해서는 Slavoj Žižek, 2002[39], p.xxxv 이하, lvii 이하를 참조하길 바란다

12) 프로이트의 전집은 제임스 스트레치가 영국 호가스 출판사에서 1960년대에 영역한 표준판 전집을 참조하였다. 프로이트의 원전은 논문이 발표된 년도가 중요한 까닭에 프로이트가 처음 독일에서 발표한 첫 출간년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Hogarth Press, London.
- [13] Freud, S. (1913). Totem and Taboo. SE, Vol. 13, Hogarth Press, London.
- [14] Freud, S. (1915a).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SE, Vol. 14, Hogarth Press, London.
- [15] Freud, S. (1915b). The Unconscious. SE, Vol. 14, Hogarth Press, London.
- [16] Freud, S. (1918[1914]). From the History of an Infantile Neurosis. SE, Vol. 17, Hogarth Press, London.
- [17] Freud, S. (1923). The Ego and the Id. SE, Vol. 19, Hogarth Press, London.
- [18] Freud, S. (1925). Negation. SE, Vol. 19, Hogarth Press, London.
- [19] Hinshelwood, R.-D. (1989). A Dictionary of Kleinian Thought, Free Association Books, London.
- [20] Isaacs, S. (1948). The Nature and Function of Phantas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9, 73-97.
- [21] Klein, M. (1923). The Role of the School in the Libidinal Development of the Child. In: M. Klein (1950) (Ed.),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1921-1945*, Hogarth Press, London.
- [22] Klein, M. (1927). Criminal Tendencies in Normal Children. In: M. Klein (1950) (Ed.),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1921-1945*, Hogarth Press, London.
- [23] Klein, M. (1929). Personification in the Play of Children. In: M. Klein (1950) (Ed.),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1921-1945*, Hogarth Press, London.
- [24] Klein, M. (1930). The Importance of Symbol-Form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Ego. In: M. Klein (1950) (Ed.),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1921-1945*, Hogarth Press, London.
- [25]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Hogarth Press, London.
- [26] Klein, M. (1936). Weaning. In: M. Klein (1975) (Ed.), *Love, Guilt and Reparation & Other Works: 1921-1945*, A Delta Book, New York.
- [27] Klein, M. (1940). Mourning and Its Relation to Manic-Depressive States. In: M. Klein (1950) (Ed.),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1921-1945*, Hogarth Press, London.
- [28] Klein, M. (1952). The Origins of Transference. In: J. Mitchell (1986) (Ed.), *The Selected Melanie Klein*, Penguin Books, New York.
- [29] Klein, M. (1957). Envy and Gratitude. In: M. Klein (1975) (Ed.), *Love, Guilt and Reparation & Other Works: 1921-1945*, A Delta Book, New York.
- [30] Klein, M. (1958). On the Development of Mental Functioning. In: M. Klein (1975) (Ed.), *Love, Guilt and Reparation & Other Works: 1921-1945*, A Delta Book, New York.
- [31] Mitchell, J. (1986). (Ed.), *The Selected Melanie Klein*, Penguin Books, New York.
- [32] Lacan, J. (1978).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W. W. Norton & Company, New York/London.
- [33] Laplanche, J., Pontalis, J.-B. (1967).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Tran. D. Nicholson-Smith (1973).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W. W. Norton, New York
- [34] Laplanche, J., Pontalis, J.-B. (1968). Fantasy and the Origins of Sex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9, 1-18.
- [35] Rivière, J. (1936). On the Genesis of Psychical Conflict in Earliest Infanc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7, 395-422.
- [36] Schmeideberg, M. (1934). Intellectual Inhibition and Eating Disorders. In: J. Rose (1993), *Why War? Psychoanalysis, Politics, and the Return to Melanie Klein*, Blackwell, London.
- [37] Schreber, D.-P. (1955). *Memories of My Nervous Illness*, W. M. Dawson & Sons LID, London,

- [38] Segal, H. (1994). Phantasy and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5, 395-401.
- [39] Žižek, S. (2002).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Verso, London.

원고접수 2005. 3. 30.

수정접수 : 2005. 5. 26.

게재확정 2005. 5. 27.